

# 동물복지형 축산의 개념과 진정한 친환경 동물복지란



전남대학교 수의과학대학  
현 한국동물복지학회 회장  
**강 문 일** 교수

세계의 안전한 축산물 거래에 대한 국제적 표준을 만들어 가는 국제동물보건기구(OIE)는 2000년 동물복지를 중점사업으로 선정 한 이후 5개년 계획을 마련하여 2005년에는 운송, 도축, 살처분 등에 대한 동물복지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바 있고 2009년에는 육우와 육계에 대한 축사시설을 비롯 사양관리 가이드라인을 선정하여 초안을 작성하고 있다. 우리와 자유무역협정을 맺기 직전인 유럽연합의 경우 2006년에 동물복지 1차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동물복지 증진과 동물보호와 관련한 정책을 포함한 실행계획을 마련 공표한 바 있다. 이를 근거로 유럽연합은 회원국들에 대한 공통된 동물복지 표시제 도입을 위한 논의를 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12년부터 산란계의 케이지 사육을 금지하고 2013년부터는 모든 스톨사육의 금지를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외국의 동물복지 현황을 살펴보면 영국정부는 1979년

농장동물복지위원회를 만들어 가축의 사육, 수송, 도축, 시장 등에 대한 입법활동에 대한 자문을 받아 왔다. 특히 1994년부터 정부가 아닌 민간동물복지 단체인 동물학대방지협회가 일종의 동물복지형 축산물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소위 'Freedom Food(동물복지 기준에 의해 생산된 축산물이라는 표시)'를 축산물판매시장에서 성공적인 브랜드화로 정착시켜 소비자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있다. 미국이나 프랑스의 경우도 유사한 동물복지형 축산물인증제도를 운영중에 있고 이웃인 일본의 경우 200년부터 축종별 동물복지 대응 사육지침을 개발하여 왔고 실제 돼지와 산란계는 개발이 완료되어 시행 중에 있다. 전반적으로 축산선진국들이 주도하는 동물복지의 세계적 추세는 자국 소비자들의 높은 의식수준을 반영하는 한편 동물복지의 국제 표준화의 공감대를 확대시켜 감으로써 결국 자국 시장의 보호나 국가간 거래에서 유리한 수단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20세기 축산의 발전방향은 기본적으로 생산성의 극대화라는 경제성을 우선시 하는 틀 안에서 발전되어 왔다. 이에 발맞춰 닭, 오리, 소, 돼지 등으로 대표되는 동물성 단백질을 생산하는 축종들은 육종학, 사료학, 영양학 등 관련학문의 괄목할 만한 발전에 따라 증체율과 사료효율이 지난 세기동안 비약적인 성취를 이룩하였지만 이들 가축들의 질병에 대한 항병성(내병성)과 사육환경에 대한 저항력은 유감스럽게도 반비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에 대한 좋은 예가 돼지의 경우 질병의 종류가 지난 20여년 동안 최소한 5종 이상이 더 많아졌다. 그

러는 사이 축산현장에서는 경제적인 사육단위가 대규모화될 수밖에 없었고 그에 따라 인력보완의 어려움이 겹쳐 가능한 한 자동화 시설과 장비에 보다 더 의존하게 되었다. 결국 가축들은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이윤'을 추구하는 경제학적 원리에 따라 축산물의 최종소비자인 인간의 건강을 위한 필수적인 수단의 하나 소위 공장형 축사내 정기적으로 바뀌 끼우는 부품 정도로 여겨져 왔고 그것을 우리 모두 당연시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인간의 삶이 다소 여유로워지면서 살아가는 동물에 대한 우리 국민의 시각이 21세기 들어서면서 동물을 인간의 합리적 목적에 사용은 하되 '최소한의 윤리적 의무'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기에 이르렀다. 이미 이 개념은 축산선진국인 유럽의 경우 30여년부터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사로 등장하였고 실제 오늘날 축산정책과 사육현장에 많은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런 배경아래 동물복지형 축산이란 '인간과 동물사이에 긍정적 유대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축산의 핵심이 사육환경의 수단이 어떠하던지 이윤추구의 폭을 넓히려는 시각에서, 지금부터는 '동물을 중심으로 한 축산환경 조성'을 우선시하는 친환경적이고 친생태학적인 사육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우리가 길러 결국 소비하는 가축(동물)들이 사육 과정 중 배고픔, 갈증, 두려움 등을 최소화하고 질병발생 시 적절한 치료와 사육장내 본능적 행동의 발현 등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는 가축을 기르는 축주들에 대하여 최소한의 윤리적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단순 경제성 보다는 축산

의 영속성(소비)을 강화할 수 있는 현대축산의 큰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

동물복지에 대한 진정한 의미는 영국 농장동물복지위원회는 1994년 '동물복지를 위한 5가지 자유'를 만들어 제시한 바 있는데 이것에 그 의미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내용은 '동물도 불안, 두려움, 좌절 기쁨 등을 느낀다'라는 50여년 전에 나온 주장에서 연유되었다.

첫 번째로 동물에 필요한 배려는 배고픔과 갈증으로부터의 자유이다.

둘째는 동물이 취급받는 동안 불안하지 않아야 할 자유이다.

셋째는 동물에 질병이 발생했을 때 적절한 조치로 겪어야 할 통증으로부터의 자유이다.

넷째는 동물이 정상적인 본능적 혹은 생리적 행동을 가 능한 표현할 수 있도록 사육환경에 반영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동물이 사육과정 중 공포나 고통을 막아줘야 한다는 개념이다. 이 모든 조건들은 바로 여러분들에게 오리(동물)를 취급하는데 요청하는 일정의 소망이라 할 수 있다. 동물복지는 인간의 동물이용에 대한 최소한의 윤리적 책임을 안내하는 가이드라인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 시키고 싶다. 결국 이러한 동물복지의 기본개념들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이에 대한 현장에서의 적용은 우리의 생사여탈권을 움켜 쥔 바로 여러분 자신들이 바로 이해하고 실천하려는 의지 없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